

탐방 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



국립서울정신병원불자회는 창립 7년만에 병원내에 법당을 마련, 부처님을 모시고 보살행을 펼 것을 서원했다.

'마음의 병'엔 자비가 영약

92년 간호사 12명 발족
매주 정오법회...신심다져

종교적 망상을 가진 환자들이다. 수 찾은 정신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종교활동이 오래도록 금지돼 왔던 국립서울정신병원에 불자회가 결성된 것은 92년 12월. 남자 간호사 이명국씨를 비롯 한 12명의 간호사가 매일 첫째 주와 셋째 주 점심시간에 법회를 봉행하기로 하면서 구성됐다. 주위의 관심조차 끌지 못한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제 회원들의 꾸준한 동참 속에 자리를 잡아 지난 9월 이충경 병원장의 도움으로 병원 내에 이동식 불단을 갖춘 법당까지 마련해 다 직장불자회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한자리에 하지는 못하지만 번갈아가며 매주 정오 법회를 열어 병원을 끊임 없는 법향으로 가득 채운다. 또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부처님의 자비심을 환자 한사람 한사람과 눈을 맞춰가며 진정한 봉사를 실현해 부처님의 큰 위신력을 보인다.

이같은 불자회의 저력은 매주 월요일 명성여고 이화주 교법사와 함께 하는 정오법회에서 비롯된다. 짧은 1시간이지만 예불 후 경전공부에서부터 대비례, 각 단 장근법법, 경전독송법법, 불교사 등에 이르는 공부를 통해 신심으로 회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봄, 가을 실시되는 성지순례법회는 회원들의 불심과 우의를 한층 북돋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양동선 회장은 "불자회의 활동은 소위 '생각의 병'에 걸린 정신병자들을 부처님 법으로 사색케하고 치유하는 방편일지도 모른다"며 "한층 성숙된 공부와 방법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불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감사원 정년퇴직후 無字들고 유발출가

감사원불자회 고문 신상두씨

'佛心' 13만번 쓴 원력복자 3년후 하산 사회봉사발원

부귀영화와 안락한 삶과 가족의 품을 미다하고 예수가 넘은 나이에 결망하나 달랑 매고 찻집 산중으로 유발출가(有髮出家)한 감사원 출신 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감사원불자회 고문을 맡아 불자회를 불심양면 도와 온 신상두 전 감사위원(61)이 주인공.



신 전 감사위원은 10월23일 서초동 대성사(주지 도문)에서 자신의 수계식을 축복해 주기 위해 모인 40여 명의 사부대중 앞에서 불심 도문스님에게 계와 화두를 받고 3년간의 용맹정진을 발원했다. 바로 전날 감사원을 정년퇴임한 신 전 감사위원은 수계후 10월27일 함안의 모 사찰로 '無(無)'字 화두를 들고 떠났다. 3년동안 백책간주 진일보의 자제로 출가승려와 똑같은 생활을 하며 화탈대오를 각오로 화두를 참구하기 위한 것.

신상두 전 감사위원은 "새로운 출발을 지켜봐 주시고 거룩한 부처님께 원만성취를 빌어주시는 불자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수행정진에 전력하겠다"며 "모든 불자들이 보살의 삶을 통해

다 함께 성불하는 도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위원은 또 "정년퇴직으로 감사원불자회와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으로 늘 격려지원하겠다"며 "신심 돈독한 불자회원들의 노력으로 자리매김을 한 감사원불자회가 더 나아가 공무원과 지식인 사회에 생활불교를 뿌리내리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전 감사위원은 3년 뒤 산내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한 후 법률자문을 통한 생활불교로 사회에 봉사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한국불교 위상회복 앞장"

자민련불자회 호국법회

자유민주연합불자회(회장 박철언)는 10월26일 중앙당 강당에서 박철언 회장과 현경자 전의원, 김 청련회보살을 비롯한 불자회원과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 봉원사 주지 인공스님, 종단협 사무국장 법현스님, 생명나눔실천회 후원회원, 봉원사 협창단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박철언 회장은 "인내와 슬기로 지난 세월의 무능을 극복하고 회향과 용서, 자비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의 탄생을 맞이하자"며 "한국불교의 위상을 회복하고 재정립하는데 자민련불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불자들의 성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은 법어를 통해 "많이 듣고 많이 봐서 공부 높여야 하더라도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오늘의 법회가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한국불교 언론인회

해인사·백양사서 수련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평식)는 10월23~24일 백양사와 해인사에서 수련대회를 가졌다.

첫날 백양사(사진)에 도착한 30여명의 회원들은 법당을 참배하고 주지 대정스님, 총무진공스님과 함께 불교 현안에 대해 담소를 나눴다. 또 일본 체류 중인 서용 방장스님 고문 위촉패를 대정스님에게 전달했다.



회원들은 또 해인사에 들러 참배하고 유나 원용스님과 선문선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용스님은 "각자 화두를 갖고 참선에 임할 때 좀더 가까이 불법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련회에는 광주전남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강남지회 등 각 지회 대표단이 현지에서 동참했다.

도필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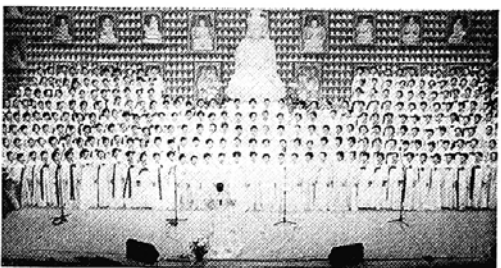
성철스님 열반 6주기 추모법회

퇴계당 성철대종사의 열반6주기 추모법회가 10월28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육법공양, 행장소개, 성철스님 육성법문, 추모사, 문도대표 인사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을 비롯 송광사방장 보성스님 고봉 봉주 운법 송월스님 강석정 합천군수 조병채 합천군 의회위원장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해 성철스님을 추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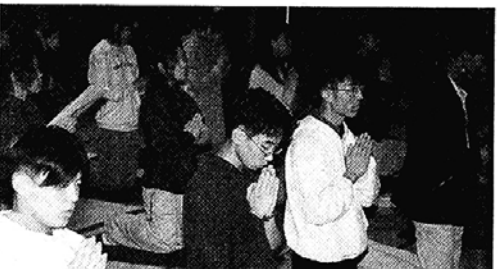
일승종 총무원장 혜정스님 취임

일승종 제11대 총무원장 혜정스님 취임법회가 10월29일 망우리 산방사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前총정 서암스님, 원용종 총정, 총화종 총무원장, 일승종 총회회장 혜덕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 7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혜정스님은 "각각을 새롭게 해 화합승가의 풍토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혜정스님은 혜덕 총회회장으로부터 공덕패를 받았다.



천태종 국민화합 기원 찬불가 제전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10월24일 서울 우면동 관문사 육불전에서 국민 대화합 기원 제2회 찬불가제전을 개최했다. 교육부(부장 도원) 주관으로 거행된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문덕스님을 비롯 박형철 참의원장 등 종단 간부와 김유혁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전국 37개 사찰 합창단 등 3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불련 서울지부 조계사 수계법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서울지부(지부장 이승철)는 10월27일 조계사 법당에서 땅에 떨어진 불교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종교적 신앙을 얻는데 청년들이 앞장선다는 취지로 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계종 포교위원장 정원스님으로부터 5계를 수지하고 108배 정진했다.

우리 모임에선

금웅단 불자회 합동법회

전국금웅단불교회는 6일 오후4시 조흥은행 본점 신관 22층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불자회와 농수협불자회, 증권거래소불자회, 금융결제원불자회, 금융감독원 불자회 등이 참여한다.

천리안 불동 전국모임

천리안불교동호회(대표이사 이경

재)는 10월23~24일 충남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에서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는 회원들 끼리 강의하고 묻는 형식으로 <반야심경>과 추사 김정희의 불교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해 공부하고 사산마애불, 보원사지, 개심사, 영탑사, 운봉길 의사 생가 등을 답사했다.

철도청 법우회 사찰순례

철도청 내 불교법우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한 합동 사찰순례 법회가 10월20일 강원도 삼화사, 관음사에서 봉행됐다.

이번 순례에는 서울 기관차 불교법우회, 청량리 기관차 불교법우회, 서울 전동차 불교법우회, 성북 전동차 불교법우회, 서울 동차 불교법우회, 재전기관차 불교법우회 등 3백여 명이 참여했다.

철도청 불교법우회는 일년에 1번 합동 사찰순례를 비롯한 정기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연등회 영남권스님 초청

국민회의 연등회 한화갑 고문(국민회의 사무총장)은 10월22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대한불교신문 주최, 대구 사업연합회 주관으로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 영남권 스님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성덕(동화사 주지) 법의(은혜사 주지) 법조(고운사 주지) 법타(대구불교방송 사장)스님과 천태종 용암스님, 진각종 현정장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 모집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살아 숨쉬는 불지종가 통도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처문반 00명, 사집반 0명
- 입학자격: 조계종승려로서 해당학과에 적격한 스님
-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주민등록증사본(양면) 2매, 3. 성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2매, 4. 은사스님 추천서, 5. 건강진단서
- 준비물: 대가사, 오조가사, 발우, 장삼, 범명도장
- 전형방법: 사진 3x4 (대가사 또는 오조착용) 3매, 서류접수후 면접
- 교과과정: 내전 - 전통강원의 기본 교과 과목, 외전 - 컴퓨터, 서예등 학인의 필요에 따른 특강 실시
- 문의처: ☎ (0523)383-2363 (승가대학) 382-7182 (종무소)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제 15 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 주지 신 허,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지 안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한의학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용식물의 성분인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합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대아기 임부의 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육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진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작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꽤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매달되는 증상(○) 이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대 뱃값이 고통스럽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월기 위류 울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땀이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